경허·만공 가르침 '세계로…'

제2회 국제 선수행대회 16~18일 신사임당학교

한국 근현대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스님과 그 제자 만공스님의 가르침을 선양하고 세계로 널리 홍포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 주목된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경허선사 얼굴 100주기 기념사업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수덕사에서 국제선종대수좌 2차례 '깊 있는 법' 을 개최한다.

지난해 경허스님 얼굴 100주기를 기념한 1차 대회에 이어 열리는 국제선수좌대회는 선 수좌에 관심 있는 국내외 스님과 제가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무차대회다. 이번 대회도 질문과고 답변하는 '선수행 토론회' 가 뼈대로 꼽힌다. 덕숭총림 반장 설정스님과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구봉스님이 법문하고, 외국인 스님으로는 무상사 국제선원 조실 대봉스님과 영가리 원광사 주지 천안스님이 법사에 오른다. 경허스님 수행의 발자취를 따라 관는 '길 없는 길' 순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대회 첫날인 16일에는 신사임당학교가 열린다. '경허선사 선양원이념' 는 박맹훈 전 정화대 교육원장이 총괄하는 일 맡다. 참여했는 '소리꾼' 정서비씨와 김덕수 사물놀이패, 국악인 김광임 씨패 바랑패 TV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으로 유명해진 박예리의 팝페라도, 불타 레퍼 아주사이더 등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박맹훈 총감독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작곡한 경허만공선사 추모곡을 처음으로 선보여 눈길을 끈다.

수덕사는 선수행대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수덕사 총무국장 효선스님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 선지식들이 세계만방에서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자리 행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hykim@buligo.com

페이스북·트위터는 여러분의 도반…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bulgyo) 트위터 (twitter.com/ bulgyo)

이분법 넘어 '생명평화 관점' 접근…불교위상 높여

■ 3차대 집행부 '1스테 초석' 뿐가와 과제 ⑥ 시체적 정의 실현

33대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4대강 문제를 시작으로 한반중공업,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등 우리사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을 풀어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 집행부가 출범한 2010년 이후 4년째 접어든 현재, 돌이켜 보면 사회 대립과 갈등의 현장에는 늘 불교가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생명과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방문하고 결사천보부장 도법스님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앞에서 108배를 하는 등 선지식도 한결같이 다른 단체들 보다앞서 나서는 국민에 서우시지 않고 불교 관음에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이라한 노력은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는 광기를 받고 있다. 불교적 대안 모색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있도했다. 취임초기부터 관심 갖고 힘써온 용산참사 문제는 구속된 철거민들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2000년 11월 취임 직후 용산참사 현장 분향을 시작으로 거듭 장례에 학생사망을 축구대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구속자 가족들도 시민단스이 말표된 날 "가장 먼저 앞장서 시민들 위해 애써주신 총무원장 스님께 감사해드리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용산참사와 함께 관단의 주요 대한진중공업 쌍용차 용산노동자 사태는 한 사회 과제였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해서도 여야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잡아놨다. 총무원장 스님은 단식 중이던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을 두 차례나 찾았고 해고 이후 사망한 22명의 노동자를 위한 진도대와 10만배 기도정진 법회 등을 열었다.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무사 귀환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법스님은 2011년 8월 노동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찾아가 10배째를 하면서 호소문을 전달했다. 파국을 막고 극타적인 선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간절 염지를 보여줬다. 쉬사나 노조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았다. 노동자와 사용자,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리고의 논리를 극복하고 화해의 접점을 찾는 화쟁사상과 생명평화의 관점으로 접근했다.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그때 11월 노사 간의 극적인 협상타결로 화학의 상황을 피했다. 불교의 이론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합도 '조계종 노동위원회' 출범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불교계 갈등이 있던 국제사회 이라 평지라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종단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활동 관리불이고 나섰다. 수년째 진전 없던 강정 이사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쉬사나 노조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았다. 노동자와 사용자,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리고의 논리를 극복하고 화해의 접점을 찾는 화쟁사상과 생명평화의 관점으로 접근했다.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그때 11월 노사 간의 극적인 협상타결로 화학의 상황을 피했다. 불교의 이론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합도 '조계종 노동위원회' 출범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분열과 갈등이 있던 국제사회 이라 평지라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종단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활동 관리불이고 나섰다. 수년째 진전 없던 강정 이사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쉬사나 노조 어느 일방의 편을 들 받았다.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킨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야야, 시민사회, 종교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국민평 논의가구' 를 만들었다. 비록 정부가 사업 예산을 낡치기도 통과시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사업 과 주요 입지들을 대폭 재검토토 끌어내 시도 자체가 새로웠다.

조계종 결사추진부장 도법스님은 "불교 위상을 높이고 우리사회 희 필요한 종교, 종교인으로 공기받으려면 사회 정의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도법스님은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다" 며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보다 큰범위와 계기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0@buligo.com

문화재위원 스님 '참여' 확대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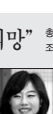
변영섭 문화재청장 예방

독실한 불자이자, 여성 최초로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변영섭 신임 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변영섭 청장을 만나 취임인사를 전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문화재위원 추천 및 해시지 복원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총무원장 스님은 "문화재 위원회이다 스님이나 불교관계자가 한 명도 없다보니 교리에 안되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며 "각 위원회마다 불교를 잘 아는 전문가나 스님이 1명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고 당부했다.

이에 변 청장은 "현재 성북도장 중구이라며 "시도나 광역단체 문화재위원의 경우 정에서 감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장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또 종단의 불교문화대구소가 개시지 조사 및 발굴사업을 진행해는 것과 관련해 "전국 50000개 폐사지 조사와 미륵사지나 왕릉사지 같은 유서 깊은 폐사지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현경 기자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지난 4일 신임 인사차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스님들의 문화재위원 참여 확대 등에 대신재호 기자 sir5314@buligo.com

"소외계층에 희망"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선 장관 '환담'



복지로 잘 알려진 조계선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이 지난 4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장관 취임 후 인사차 방문한 조계선 장관을 만나 환대 인사를 건네고 환담을 나눴다.

조계선 장관은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지 않으면 성장동 이 둘 수 없다가는 기조 속에서 중책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며 "성폭력 피해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여러분력의서 고맙다" 고 인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얼마 전 '국가가 얼마가 돼줄 수 있도록 하겠다' 는 말씀을 한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며 "양보와 함께 종교계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관심을 모고 지원하면 소외계층에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격려했다. 이현경 기자

본·말 주요일지

(4월4일 종무회의)

상보스님 영월 법흥사	덕산스님 청량 혜은사	각소스님 파산 해광원	남광스님 안성 대원사
영선스님 연기 관재원장	송주스님 대전 홍원사	법경스님 강산 국학사	명선스님 대전 송학사
진명스님 원산 구고사	원선스님 월정 운주원	현묘스님 화산 목우원	현호스님 무안 운산사

'불교상용의례집' 발간

승가대학 교재…시판 예정

승가대학 필수교과로 선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불교상용의례 교과목의 강의용한 진행을 위해 종단이 관련 교재를 펴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혜명스님)는 최근 (불교상용의례집)을 발간해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받는 전국 승가대학 3학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학인 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들이 논능이에 맞췄다.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에는 사찰의례, 생활의례, 상례, 상례의 등이 두루 담겨 있다. 사찰의례에서는 예불과 불공, 재 등을 다룬다. 생활의례에서는 입종의례나 돌사, 돈벌, 가정불공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의례를 익힌다. 이와 함께 상례, 묘소, 법문의식 시장작법 도수륙대 등이다.

의례집은 한문의서와 한글의서로 나뉜다 실렸다. 현행을 공부하는 스님이나 제가대들도 구매할 수 있다.

이현경 기자 sonam@buligo.com

산중총회 소집공고

종헌 제 105조 및 산중총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소집 일시** : 불기2557(2013)년 **5월 2일 목요일**(음2013년 3월 23일) 오후 2시

◐ **소집 장소** : 제9교구 본사 동화사 대웅전

◐ **안 건** : 방장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 자격**

- 당해 교구의 제적승으로 **법계 종사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미달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식 이상의 당해 제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
  - ㄱ. 당해 교구 신원에서 **8안건 이상 상반**한 자
  - ㄴ. 당해 교구 대중정부에 등재되고, 전탑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제적승, 제적승, 거주승 자격요건이 강화 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승 신고기간**
불기2557(2013)년 **4월** 10일(수) ~ **4월 16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불기2557(2013)년 **4월 23일**(화) ~ **4월 25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거주승신고 · 구성원명부열람 장소** : 제9교구 선거관리위원회(동화사 종무소)

◐ **문 의 처** :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종무소 (전화 : 053-985-4404)

불기2557(2013)년 4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성 문